
기획논문

1358년 7월 31일, 에티엔 마르셀의 죽음

– ‘중세의 당통’과 ‘파리의 혁명’에 대한 기억 –

박 용 진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신화와 탈신화: 정치적 기억과 역사학의 기억 |
| II. 텍스트: ‘파리의 혁명’과 에티엔 마르셀의 죽음 | IV. 대중의 기억 |
| | V. 나가며: 파리의 현재와 미래 |

국문초록

14세기 중반에 있었던 에티엔 마르셀과 파리의 혁명에 대한 해석은 프랑스 혁명을 보는 시각과 일치해왔다. 대개 우파는 마르셀을 음모가, 반역자, 폭력적 범죄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달리 좌파는 일반적으로 마르셀을 공화주의의 선구자, “중세의 당통”, 심지어 계급투쟁이나 파리코윈의 선구자라고 칭송했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19세기 이래 프랑스 사회의 변동에 따라 어느 한 쪽이 강조되곤 했다. 제3공화정 초기 에티엔 마르셀은 왕정에 맞서 민중의 권리를 옹호한 공화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로 영웅시되었다. 이것은 제3공화정 초기 기억의 전투에서 공화주의자들이 승리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전문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사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왕정에 대항하여 파리의 자치를 지킨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체, 나아가 큰 권력과 작은 권력 사이에 새로운 관계 형성이 요구된다는 반증이다. 그러므로 프랑스 사회가 변화를 거듭하는 한 마르셀에 대한 기억은 끊임없이 소환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6)을 밝힌다.

I. 들어가는 말

파리를 구경한다면 루브르 궁전이나 노트르담 성당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루브르 궁전에서 유리 피라미드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건물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프랑스의 위인들의 조각상, 일종의 ‘야외 팡테옹’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트르담 성당을 방문하면서 그 앞에 있는 샤를마뉴 동상을 눈여겨보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파리 시청은 반드시 들르는 곳은 아니지만,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사람들은 이 건물을 바라볼 때에도 정면의 웅장함을 감상할 뿐, 건물의 기둥에 줄지어 서있는 파리 출신의 유명 인사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물며 이 건물의 정면이 아니라 센 강변 쪽에 비껴 서 있는 기마동상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동상은 한 인물이 말을 타고 한 손으로는 칼을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두루마리 문서를 앞으로 쭉 펼쳐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람은 에티엔 마르셀(Etienne Marcel)이라는 인물로서 그가 손에 쥐고 있는 문서는 파리의 자치를 상징하는 특허장이다.

이렇듯 무관심 속에 외면당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는 여전히 인용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F. Hollande) 대통령은 파리 시청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와 파리의 역사는 대립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파리의 권력은 끊임없이 중앙권력에 대항했습니다. ‘상인조합장(Prévôt des marchands)’(강조는 필자)은 국왕에 저항했고, 시정부는 궁정에, 코뮌은 베르사유에 저항했습니다. 국가는 파리를 믿지 않았습니다.”¹⁾ 국왕에 저항한 상인조합장이란 당연히 에티엔 마르셀이다.

1) I. Backuouche, “Qui a peur du Maire de Paris?”, *L'Histoire*, no. 396(Fev. 2014), p. 18. 원문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www.elysee.fr/declarations/article/discours-de-m-le-president-de-la-republique-a-l-hotel-de-ville-de-paris/>(2016년 8월 15일).

이처럼 잊혀져 있다가도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에티엔 마르셀이라는 인물은 파리의 상인조합장으로서 1350년대 중엽 왕국의 개혁을 시도하다가 1358년 7월 31일 살해당한 사람이다. 이 기간 중 일어난 사건들은 반란(révolte), 개혁(réforme), 혹은 혁명(révolution) 등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그것은 ‘파리의 혁명’으로 불리며 자주 1789년 프랑스 혁명과의 유사성이 지적되곤 한다.²⁾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왕국의 재정위기에 있다는 점, 이러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했다는 점, 이렇게 소집된 삼부회가 왕권을 통제하려 했다는 점이 초기 단계에서의 유사성으로 지적되곤 한다. 또한 1357년 대칙령은 1791년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1358년 마르셀이 벌인 살해사건은 1792년 8월 민중들의 폭력과 뒤이은 학살의 전조였다고도 한다. 마르셀의 ‘파리의 혁명’은 단지 1789년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1830년 7월 혁명, 1848년 6월 봉기, 1871년 파리 코뮌의 전조로서 간주되기도 한다. 결국 마르셀과 파리의 혁명에 대한 시각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르셀은 14세기 위기의 시기에 삼부회를 중심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 입헌주의 개혁가, ‘중세의 당통’, 파리 코뮌의 선구자 등으로 찬양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백년전쟁 기간 중에 영국과 가까운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폭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반역자, 폭력범, 공포정치의 폭군 등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평가가 내려지는지, 그리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자.

2) 에티엔 마르셀의 ‘파리의 혁명’과 프랑스 혁명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성백용, 『에티엔 마르셀과 14세기 ‘파리의 혁명’』, 박상철 편, 『꿈은 소멸하지 않는다』(한겨레출판사, 2007), 45-74쪽.

II. 텍스트: ‘과리의 혁명’과 에티엔 마르셀의 죽음³⁾

1. 재정문제와 삼부회(1356년)

『장 2세와 샤를 5세 치세 연대기』에는 1358년 7월 31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7월 [31일] 화요일 상인조합장과 그의 일당은 무장을 하고 식사 전에 생드니 요새로 갔다. 그리고 그 요새를 지키던 문지기에게 열쇠를 나바르 왕의 재무관인 조스랑 마콩에게 넘기라고 명령했다. 그 문지기는 열쇠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인조합장은 격노하여 열쇠를 지키던 문지기와의 언쟁을 벌였다. 그러자 도시에서 그 요새가 속한 구역의 구대장인 부르주아 장 마이아르가 언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인조합장에게 가서 열쇠를 조스랑에게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상인조합장 및 조스랑을 한 편으로 하고 장 마이아르를 다른 편으로 하여 말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마이아르가 말을 타고 프랑스 왕의 깃발을 들고 이렇게 소리쳤다: “프랑스 국왕과 [노르망디] 공작⁴⁾ 만세.” 그를 본 사람들은 뒤따르며 같은 합성을 질렀다. 물론 상인조합장과 그의 동료들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생탕투안 요새를 거쳐 중앙시장으로 가서 멈췄다. 페팽 데 제사르라는 어느 기사는 장 마이아르가 한 행위를 모르는 채 이미 프랑스 군기를 들고 있다가 장 마이아르의 합성과 같은 소리를 외쳤다. 그동안 상인조합장은 생탕투안 요새로 가서 나바르 왕이 그에게 보낸 편지가 들어있는 두 개의 상자를 들고 왔다. 그리고서 그 요새를 지키고 있던 자들에게 이 편지들을 보여주라고 했다. 그러자 그 요새에서 언쟁이 일어났고 그곳에

3) 에티엔 마르셀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정리한 이 장은 주로 다음 자료를 참조했다. 박용진, 『1358년 에띠엔느 마르셀 반란의 원인과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2). (이하 박용진, 『에띠엔느 마르셀 반란』으로 줄임); 성백용, 『14세기 후반-15세기 초 프랑스 왕정과 북부 도시들의 반란 : 국가 재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2), 12-35쪽(이하 성백용, 『프랑스 왕정과 북부 도시들의 반란』으로 줄임).

4) 노르망디 공작이란 세자 샤를(후일 샤를 5세)을 말한다.

있던 어떤 사람이 상인조합장과 함께 온 필리프 지파르를 덮쳤다. 지파르는 무장을 하고 머리에는 철모를 쓰고 있었지만 결국 살해당했다. 뒤이어 상인조합장과 그의 동료 시몽 르 파니에가 살해당했다.⁵⁾

이 기록에서 에티엔 마르셀은 줄곧 “상인조합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그가 중요한 인물인 이유는 상인조합장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는 1354년 파리 상인조합장이 되었다. 그리고 1355년 삼부회에 도시대표로 참여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가 상인조합장이 된 시기는 프랑스 왕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던 때였다. 인구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기근이 빈발하며 역병이 창궐하던 시기, 즉 14세기의 일반적 위기가 심화되던 시기였다. 이에 더하여 1337년부터는 후일 백년전쟁이라고 불리는 영국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전쟁이 흑사병으로 인하여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1355년 영국왕 에드워드 3세(Edward III)의 칼레 상륙으로 전쟁이 재개되던 시점이었다. 영국의 침략에 맞서 국왕 장 2세(Jean II le Bon)는 전비를 마련해야 했으나, 전쟁보조세 징수도, 화폐조작⁶⁾을 통한 수입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 마디로 왕실은 재정위기에 빠져 있었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삼부회를 소집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1355년 11월 30일 랑그도일 삼부회가 열렸다. 이 삼부회에서 에티엔 마르셀은 제3신분 대표로서 연설을 했다. 삼부회는 12월 28일 칙령을 통하여 전쟁보조세를 승인하는 대신 양화를 주조하고 관

5) R. Delachenal (éd.), *Chronique des règnes de Jean II et Charles V*, vol. 3(Paris, 1910-1920), pp. 205-209(이하 R. Delachenal (éd.), *Chron. Jean. II.*로 줄임).

6) 화폐를 회수하여 다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흔히 화폐 개주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중세의 화폐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특성보다는 경제의 한 요소로서의 화폐를 강조하기 위해 화폐 ‘개주’ 대신 ‘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4-15세기에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화폐전쟁’이 전개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제 현상이 마치 오늘날의 환율 전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 환율 ‘조작’을 빗대어 화폐 ‘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중세의 화폐 문제에 관해서는 박용진, 『에티엔느 마르셀 반란』 제3장 및 성백용, 『프랑스 왕정과 북부 도시들의 반란』 제2장 참조.

료의 부패를 척결할 것을 결정했다. 이 삼부회의 결정 중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삼부회가 징세관을 임명하고 그들을 감독할 권한을 획득하였다는 것과 징세량의 중간 결산을 위해 차기 삼부회를 예정하였다는 점이다. 1355년 삼부회는 세금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왕권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또한 이러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왕권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했던 힘은 국왕의 재정적 요구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삼부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삼부회의 통제는 징세량과 외적 상황에 의존하는 허약한 것이었다. 실제 각 지방에서는 납세 거부가 확산되어 징세량은 예상에 훨씬 못 미치게 되었다. 결국 1355년 12월 삼부회는 재정에 관한 한 왕권을 통제하고 삼부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부정기적 소집을 정기적 소집으로 바꾸어 놓는 데 성공했으나, 자신들의 힘의 근거인 징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국왕에게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징세량이 미흡하다고 해서 삼부회가 가지고 있던 통치에 대한 불만, 특히 화폐개주와 관료의 부패에 대한 불만이 없어질 수는 없었다.

불만이 결정적으로 폭발하게 된 것은 1356년 9월에 있었던 푸아티에 전투에서의 패배 때문이었다. 이 전투에서 국왕 장은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고 귀족들은 겁에 질려 달아나기에 바빴다.⁷⁾ 신민들은 귀족과 관직자들의 부패 때문에 왕국에 재앙이 덮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재앙에 직면하여 삼부회는 예정보다 빠른 1356년 10월에 소

7) 1356년 9월 17일 푸아티에 근처 모페르튀에서 벌어진 전투. 보르도에서 출발한 영국의 세자인 '흑세자'가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남하하는 영국군과 합세하기 위해 루아르 강으로 진군했다. 국왕 장 2세는 샤프트르에 군대를 집결시킨 뒤 루아르 강으로 갔다. 프랑스군은 무리하게 진격을 하다가 참패를 당했다. 기사 2-3천 명이 사망했고, 국왕 장을 비롯하여 2천명의 기사가 포로로 잡혔다. 당시 푸아티에 전투의 패배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Ch. R. de Beaupaire, "La complainte sur la bataille de Poitiers", *Bibliothèque de l'Ecole des Chartes*, t. 12(1851), pp. 257-263 참조.

집되었다. 국왕이 포로가 되었으므로 국왕대리인이자 장자인 세자 샤를(Charles, 후일 샤를 5세)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 삼부회는 세자와 삼부회 대표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결국 세자는 삼부회가 재정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으므로 전통적인 재정확보 수단인 화폐조작을 단행했다. 마르셀은 이에 항의하여 파리의 장인과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지시하고 모든 시민에게 무장을 지시했다.⁸⁾ 하는 수 없이 세자는 마르셀과 파리 시민에 굴복하여, 삼부회의 소집과 주화 발행에 대한 삼부회의 통제권, 그리고 삼부회가 지목한 관직자들의 파면과 체포, 재산의 압류를 약속했다.

2 개혁과 대칙령(1357년)

세자가 약속한 삼부회는 이듬해인 1357년 2월 개최되어 무려 한 달 간이나 지속되었고 그 결과를 담은 대칙령(Grand Ordonnance) 또한 61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한 것이었다.⁹⁾ 그렇지만 그 내용은 새로운 세금 결정, 양화주조, 강제차용 금지 등 1355년 12월 삼부회와 1356년 11월 삼부회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보다 자세하게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삼부회의 권한에 관한 한 훨씬 강화되어, 삼부회가 국왕이나 세자의 소집명령서 없이도 소집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칙령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그러나 4월 5일 보르도에 억류되어 있던 국왕은 삼부회 소집을 금지하고 삼부회가 결정한 전쟁보조세 납부를 거부하도록 명령했다. 이 편지로 인하여 삼부회 대표들은 전쟁을 계속 수행하려는 측과 평화를 원하는 측으로 분열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은 평화를 기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납세를 거부하

8) “상인조합장은 도시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장을 지시했다(et fist commander le dit prevost par toute la dicte ville que chascun s’armast).” R. Delachenal (éd.), *Chron. Jean. II.*, p. 96.

9) 대칙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용진, 『에티엔느 마르셀 반란』, 9-10쪽 및 성백용, 『프랑스 왕정과 북부 도시들의 반란』, 21-22쪽 참조.

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징세량은 목표치에 턱없이 모자랐고, 이로 인하여 1357년 봄의 개혁조치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러나 파리를 떠나 지방을 돌아다니며 귀족과 성직자들로부터 재정을 확보하려 했던 세자 역시 실제 재정확보에는 실패함으로써 곤경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수입을 원하는 세자와 개혁을 요구하는 마르셀 양측의 필요에 의해 삼부회가 소집되었다.

이 삼부회는 1357년 11월 소집되었으나, 회기 중에 발생한 나바르 왕 탈출 사건¹⁰⁾으로 나바르 왕의 대우에 대한 토의만을 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끝났고,¹¹⁾ 1358년 1월 나바르 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삼부회가 소집되었으나 정작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차례의 삼부회에서 마르셀, 로베르 르 코크(Rober le Coq)¹²⁾, 장

10) 나바르 왕 샤를은 필리프 3세(Philippe III le Hardi)의 친손자인 에브뢰 백작 필리프(Ph. d'Evreux)와 필리프 4세(Philippe IV le Bel)의 친손녀인 나바르 여왕 잔 2세(Jeanne II)의 아들이다. 따라서 그는 부계로 보든 모계로 보든 성왕 루이(Saint Louis IX)의 후손으로서, 필리프 4세의 외손자인 영국왕 에드워드 3세보다 프랑스 왕위계승에서 우선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왕위계승 문제가 불거진 뒤인 1332년에 태어났기에 그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불리한 처지였다. 1354년 1월 국왕 장의 총신 샤를 데스파뉴(Charles d'Espagne)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나바르 왕은 국왕 장과는 적대관계를 갖게 되었고 영국과는 동맹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356년에 이르러 나바르 왕이 국왕 장을 살해하기 위해 밀사를 파견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장은 4월 5일 루앙에 있던 나바르 왕을 체포하고 그의 친구들을 살해하였다. 그는 나바르의 왕인 동시에 에브뢰 백작이었으며 노르망디와 피카르디에 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다. R. Cazelles, *Société politique, noblesse et couronne sous Jean le Bon et Charles V*(Genève: Droz, 1982), pp. 9-10, 57-59, 148-49, 157-59; 성백용, 같은 논문, 13쪽; 박용진, 같은 논문, 4쪽.

11) R. Delachenal (éd.), *Chron. Jean II.*, pp. 124-125.

12) 로베르 르 코크는 몽디디에(Montdidier)의 소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전하나, 카젤(R. Cazelles)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우다르 르 코크(Oudard le Coq)는 루앙과 오를레앙의 바이이었다. 일찍이 그는 오를레앙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1340년 고등법원의 변호인으로서 파리에 정착한 이래 궁내부 청원법관, 고등법원의 참사회원 등을 지냈다. 그가 국왕에게 등을 돌리고 나바르 파로 전향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국내상서직을 둘러싼 경쟁에서 피에르 드 라 포레에게 밀려났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성백용, 『프랑스 왕정과 북부 도시들의 반란』, 19쪽. 이 당시에는 랑(Laon)의 주교였다.

드 피키니(Jean de Picquigny)¹³⁾ 등은 나바르 왕을 지지했다. 삼부회의 영향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지 세력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유력한 왕족이었던 나바르 왕과의 제휴는 매력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바르 왕 문제가 삼부회에 가져다 준 결과는 분열이었다. 나바르 왕은 북부 프랑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영국과 연계하려 했으므로 대부분 발루아 왕조에 충성하고 있던 귀족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판을 얻고 있었다. 또한 도시들 역시 노르망디와 피카르디의 도시들은 대체로 나바르 파에 속했으나 샹파뉴나 부르고뉴 지방의 도시들은 나바르 왕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결국 1357년 대칙령을 통한 개혁은 국왕 장의 편지, 그리고 나바르 왕 문제로 인하여 실행이 점차 불가능하게 되었고, 개혁세력은 점차 분열되어 약화되었다.

3. 반란 혹은 ‘파리의 혁명’(1358년)

이렇듯 1357년부터 1358년 초에 이르는 동안 개혁에 대한 세자의 반대가 심해지고 징세량의 부족으로 삼부회의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마르셀은 무력에 호소하게 되었다. 2월 22일 마르셀은 그를 지지하는 3000여명의 무장한 시민을 이끌고 왕궁으로 찾아가 세자에게 칙령의 조항들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화 중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시민들은 샹파뉴 원수 장 드 콩플랑(Jean de Conflans)과 노르망디 원수 로베르 드 클레르몽(Robert de Clermont)을 살해했다. 두 원수가 죽자 세자는 마르셀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마르셀은 “전하, 두려워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파리의

13) 피키니는 아미앵 근처의 영지이다. 이곳의 영주는 아미앵 주교의 대리기사였다. 장 드 피키니는 이 집안 출신으로서 나바르 왕을 구출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집안이 아미앵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박용진, 「아미앵을 통해서 본 코르틴의 변천 : 도시와 왕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3), 120-122쪽.

상징 모자와 세자의 모자를 바꿔 썼다.¹⁴⁾ 곧이어 그는 그레브(Grève) 광장으로 가서 군중에게 “교활하고 사악한 반역자들”의 살해에 대해 해명하고 그것이 왕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정당화했다. 그리고 다시 팔레로 돌아와서, 세자에게 그들이 “인민의 의지(de par le dit peuple)”에 따라 처형된 것이라 주장하며 사면을 받아냈다.¹⁵⁾ 이리하여 삼부회로부터 시작된 개혁은 이제 명백한 반란의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개혁에 대하여 점차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오던 귀족이 이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뚜렷이 함으로써 반란은 신분 간의 대립이라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림 1〉 마르셀의 반란: 세자와 모자를 바꿔 쓰고 있는 마르셀

세자는 3월 14일 ‘섭정(régent)’ 칭호를 받고나서, 지방 삼부회 개최를 핑계로 파리를 떠났다. 이것은 마르셀과 파리 시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4월과 5월에 걸쳐 지방에서 삼부회를 개최

14) “Sire, vous n’avez garde,” R. Delachenal (éd.), *Chronique Jean II.*, p. 149.

15) R. Delachenal (éd.), *Ibid.*, pp. 150-151; 성백용, 『프랑스 왕정과 북부 도시들의 반란』, 26쪽.

하고 파리의 생필품 공급로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마르셀과는 무력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마르셀은 곳곳의 성문 주위에 성벽을 치거나 해자를 파고 포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루브르 성에 설치된 포대를 시청사인 메종 오 필리에(Maison aux Pilliers)로 옮기도록 조치했다.¹⁶⁾

이러한 상황에서 사태를 더욱 폭력적인 방향으로 이끈 것은 1358년 5월 28일경 보베 지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농민들의 반란인 ‘자크리(Jacquerie)’였다.¹⁷⁾ 우아즈(Oise) 강 연안의 한 작은 마을에서 농민들이 여러 명의 기사들을 살해함으로써 시작된 자크리는 보베 지방과 파리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 반란은 귀족의 성과 저택에 대한 엄청난 파괴와 약탈을 수반한 귀족 전체에 대한 비귀족의 사회적 전쟁¹⁸⁾이라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마르셀은 이러한 주변 지역 농촌의 봉기가 파리의 봉쇄를 푸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농민군과 제휴했다. 그는 수백 명의 시민군을 파견하여 파리의 식량공급로를 차단하고 있던 주변지역의 성채들을 파괴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일단 부분적으로 성취되자, 그는 농민들의 맹목적인 폭력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곧 시민군을 철수시켰다.

자크리의 진압과정을 통하여 다시 결집하게 된 귀족들은 비귀족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고 파리를 봉쇄하려는 섭정의 노력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파리의 고립은 자크리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그가 이전부터 군사적 능력을 높이 평가해 온 나바르 왕과 제휴하는 것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6월 15일 마르셀은 나바르 왕을 파리의 총사령관(capitaine général)으로 추대하였다.

16) 성백용, 같은 논문, 28쪽.

17) 자크리에 대해서는 성백용, 「1358년 자끄리와 프랑스 농촌의 위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2) 참조.

18) R. Cazelles, *Société politique, noblesse et couronne sous Jean le Bon et Charles V*, p. 329.

그럼에도 섭정의 포위는 점차 좁혀졌고, 궁지에 몰린 마르셀은 영국 출신 용병을 고용하기까지 하여 이러한 봉쇄를 풀려고 하였지만 파리 시민군과 용병만으로 귀족과 섭정의 포위망을 뚫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7월 16일 평화를 촉구하는 교황의 권고에 따라 섭정과 나바르 왕, 왕비 잔과 고위 성직자들, 파리 시행정관 등이 회동하여 마침내 타협에 도달했다.¹⁹⁾ 자금난에 봉착해 있던 섭정은 군대를 해산하고 22일간의 파리 봉쇄를 해제하고, 도피네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이리하여 마르셀과 파리의 저항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파리 시민들은 내부의 적에게 눈을 돌렸다. 3개월이 넘는 봉쇄로 인하여 파리에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시민들은 그 책임을 파리 주변지역에서 식량을 약탈하고 있던 영국인 용병의 탓으로 돌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시민들은 마르셀이 파리의 방어를 위해 고용한 영국인 용병들을 살해하고 투옥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런데 7월 27일, 마르셀이 200여 명의 호위대를 이끌고 루브르에 감금당한 영국인 포로들을 생토노레(St-Honoré) 성문 밖으로 인도하자 파리의 민심은 나바르 왕과 마르셀에게서 뚜렷이 이반하기 시작했다.

결국 7월 31일 마르셀과 나바르 왕의 결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은 페팽 데 제사르(Pepin des Essars), 장 마이아르(Jean Maillart), 장드 샤르니(Jean de Charny) 등이 공모하여 마르셀을 살해함으로써, 마르셀의 반란은 끝을 맺었다.²⁰⁾ 도피네(Dauphiné) 지방으로 철수하던 섭정은 이 소식을 듣고 8월 2일 승리자로서 파리에 입성하였다. 반란에 연루되었던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으며, 이들 중 몇 명은 사형에 처

19) 성백용, 『프랑스 왕정과 북부 도시들의 반란』, 33쪽.

20) 사실 장 마이아르는 모직물 상인이었던 데다가 지구대장(Quartanier)을 할 정도였으므로 마르셀의 열성적 지지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페팽 데제사르는 장 2세의 치세 초기의 한 문서에 기사 신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L. Lacabane, "Mémoire sur la mort d'Etienne Marcel, 1358", *Bibliothèque de l'Ecole des Chartes*, t. 1(1839-1840), pp. 79-98; 성백용, 같은 논문, 34쪽.

해졌으나, 반란 기간 중 마르셀을 지지하였던 파리 시민 전체에 대해서는 8월 10일경 사면이 행해졌다.²¹⁾

III. 신화와 탈신화: 정치적 기억과 역사학의 기억²²⁾

1. 신화: 정치적 기억

1350년대 중반 에티엔 마르셀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건, 이른바 “파리의 혁명”의 전개 과정을 보면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떠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에티엔 마르셀을 기억하는 과정은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시 당대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에 기반하게 마련이었다. 한 마디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마르셀과 ‘파리의 혁명’을 대하는 입장이 달랐던 것이다.

마르셀에 대한 평가는 마리안느(Marianne)와 같은 공화주의의 상징이 신화화되는 과정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처음에는 반혁명파에 의해 경멸적 의미로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혁명파들에 의해 좌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프랑스 혁명파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혁명기의 저작들 중에서 마르셀에 호의적인 것은 없었다. 혁명기의 저작들은 자신들의 전범을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가져왔다. 예를 들어 생쥐스

21) 성백용, 같은 논문, 35쪽.

22) 이 절을 비롯하여 에티엔 마르셀에 대한 연구사는 대부분 아말비(Ch. Amalvi)의 논문을 주로 참조하였다. Ch. Amalvi, “Les métamorphoses révolutionnaire d’Etienne Marcel de Danton à François Mitterrand”, *De l’art et la manière d’accommoder les héros de l’histoire de France: De Vercingétorix à la Révolution* (Albin Michel, 1988), pp. 205-309; Ch. Amalvi, “L’exercices de Style historiographique ou les métamorphoses révolutionnaire d’Etienne Marcel de Danton à De Gaulle”, *Francia*, band 13(1985), pp. 524-560; Ch. Amalvi, “L’érudition française face à la révolution d’Etienne Marcel: une histoire mythologique? (1814-1914)”, *Bibliothèque de l’Ecole des Chartes*, t. 142(1984), pp. 287-311.

트(Saint-Just)는 연설에서 리쿠르고스(Lycurgos), 포키온(Phocion), 소크라테스 등 그리스 인물들을 사례로 들었다.²³⁾ 혁명이 계몽사상과 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상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보다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에 이르기 때문이었다. 중세는 오히려 반이성적인 신앙의 시대로 인식되었으므로 혁명의 선조를 발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마르셀에 대한 평가는 그리 많지 않다. 1793년 실뱅마레샬(P. Sylvain-Marèchal)이 쓴 『공화주의자 연감』(*Almanach des républicains pour servir à instruction publique*)에도 마르셀의 이름은 없다. 그나마 국민의회 의원이었던 투레(Jacques Guillaume Thouret)가 1358년과 1789년 혁명의 유사성을 기술하면서 마르셀과 로베르 르 코크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인 것이 거의 유일한 평가이다.

왕정복고기에 이르러 사정이 달라졌는데, 이는 혁명의 기원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논쟁의 과정에서 마르셀이 언급되었다. 왕당파는 1789년 혁명이 음모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음모는 유서 깊은 일로서 이미 14세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왕당파는 14세기와 18세기에 일어난 두 혁명 모두를 음모라고 비난하며, 야심가와 선동가들이 순진한 민중을 선동했으며, 민중은 처음에는 공포정치를 따랐으나 나중에는 정통성 있는 주권자를 지지했다 주장했다. 이와 달리 자유주의자들은 1356년과 1789년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뉘로르(Dulaure)나 시스몽디(Sismondi)같은 사람들은 마르셀과 로베르 르 코크를 “대의제의 선구자”라고 칭송하며, 1357년의 대칙령이야말로 최초의 헌장(Charter)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1830년 7월 혁명으로 입헌왕정이 들어서자 마르셀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 이번에는 7월 혁명이 오랫동안 준비된 혁명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마르셀과 그의 개혁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마르셀을 프랑스에 “입헌체제를 부여한 인물”로 평가했다. 예를 들어 미슐레는

23) Ch. Amalvi, “L'exercices de Style historiographique”, pp. 526-527.

“우리의 특권들은 그의 덕택이다. 그는 1357년 칙령 속에 여전히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티보도(A. de Thibeaudeau)에 이르면 절정에 달한다. 티보도는 마르셀을 프랑스를 구한 “중세의 당통(Danton médiéval)”이라고 했다. 이와는 약간 다르게 자유주의자였던 키세라(J. Quicherat)는 마르셀의 활동 시기를 두 시기로 나누어서 1357년 대칙령을 만들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이후 폭력화한 시기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즉 “1357년 3월 3일의 칙령은 오늘날 제도를 준비한 첫 시도였다”고 했으나 뒤이어 “그의 통치 기간은 ‘공포의 기간’이었다”라고 함으로써 산악파의 공포정치를 연상시키려고 했다.

1848년 6월 봉기는 마르셀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6월 봉기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1358년의 폭력사태와 나란히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콤브(F. Lacombe)는 폭력성보다는 근대성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며 “에티엔 마르셀은 14세기에 민중주권의 원칙을 천명한 최초의 부르주아이며, 마르셀의 반란은 무기를 든 프랑스 혁명의 모태”라고 했다.²⁴⁾

제 2제정기에 들어서 나폴레옹 3세의 강압적인 통치가 심화되자 자유주의자들은 마르셀을 개혁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리하여 페랭(T. Perrens)은 그의 저작에서 마르셀을 “중세에 근대의 입헌 제도를 꿈꾼 사람”이라고 했다.²⁵⁾

1870년대를 넘어서면서 마르셀에 대한 관심은 폭증했다. 우선 1871년에 있었던 파리코뮌이 1358년 파리 봉쇄를 초래했던 마르셀의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스당(Sedan) 전투와 푸아티에 전투를 유사한 것으로 생각했다. 우파는 파리코뮌이 남긴 폐허의 이미지를 1358년 파리 봉쇄와 같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14세기와 19세기의 파리 시민을 동시에 비난했다. 페랭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파리 코

24) *Ibid.*, pp. 530-531.

25) 페랭의 관점은 그의 저작의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다. F.-T. Perrens, *La démocratie en France au Moyen Âge*, Vol. 2(Paris: Didier, 1873).

뮈와 마르셀의 혁명이 다른 것으로 변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뮌 이후 페랭의 입장은 종전의 찬양일변도에서 훨씬 더 완화된 논조를 갖게 되었다. 이와 달리 좌파는 마르셀을 찬양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합법의 고수라는 한계를 지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좌파와 우파가 서로 논쟁을 벌임으로써 마르셀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서 멀어졌고 영웅으로 변모해갔다.

1870년대에 마르셀과 관련된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는 그것이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다.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의 패배로 제 2제정이 무너지고 임시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리고 제 3공화정이 들어선 이후에도 한 동안, 새로운 체제가 어떤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당시의 첨예한 문제였고 이를 두고 좌파와 우파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역사에서 찾으려고 했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마르셀의 ‘파리의 혁명’에 대한 해석은 그 사건의 프랑스 혁명과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변동과 맞물려 변화를 거듭했다. 혁명 이후 19세기 동안 표출된 견해는 크게 보아 좌파와 우파로 나뉠 수 있으나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먼저 우파는 일반적으로 마르셀을 음모가, 혹은 반역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대체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가톨릭은 일반적인 우파와는 달리 마르셀을 나바르 왕 샤를의 꼬임에 빠진 가련한 인물로 보았다. 그리하여 애국심을 가지고 있으며 민중의 자유를 원했으나 폭력성으로 그 이름을 더럽혔다고 평가했다. 이보다 좀 더 자유주의적인 평가는 마르셀의 정치적 삶을 두 시기로 나누어 1355년 12월부터 1357년 대칙령이 발표되던 때까지는 개혁가 마르셀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1358년 세자 면전에서 살해사건 이후부터 마르셀이 살해당할 때까지는 폭력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프랑스 혁명의 기간 중에서 1789-1791년을 개혁적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1792년-1794년 자코뱅파와 상퀼로트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던 기간을 일탈로 보는

26) Ch. Amalvi, “L’érudition française face à la révolution d’Etienne Marcel”, p. 299.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좌파는 일반적으로 마르셀을 공화주의의 선구자, 혹은 대의제에 의한 국가를 수립하려 했던 인물로 간주했다.

2. 탈신화: 역사학의 기억

이처럼 좌파와 우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것이 정확한 사료를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않았다. 19세기 말부터 실증주의가 대두되면서 마르셀에 대한 사료를 편찬하고 가능한 많은 사료를 수집하여 이에 근거하여 해석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²⁷⁾ 이와 더불어 그동안의 해석이 마르셀이라는 인물과 그의 행위에만 집중하여 이루어진 것에서 벗어나 정치적 집단이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전쟁과 군대에 관한 지식 등 다양한 각도에서 1350년대 중반을 조망하려 시도했다. 시메옹 뤼스(Siméon Luce), 알프레드 코빌(Coville), 폴 비올레(Paul Viollet) 등이 그들이다.²⁸⁾ 뤼스의 경우 자신의 저서 『자크리의 역사』에서 마르셀과 자크리의 관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마르셀이 자크리와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크리의 절제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행정을 개혁하려는 개혁가이자 질서와 권리의 옹호자였으며 프랑스에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야망을 대표하는 자이며 영국인들의 친구이며 나바르 왕 샤를과 동맹을 맺었다.”²⁹⁾

코빌은 가장 비당파적이며 냉정한 연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27) 물론 19세기 전반에도 사료의 편찬은 있었으나, 이들은 사료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각주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28) 이들의 저작은 다음과 같다. S. Luce, *Histoire de la Jacquerie, d'après des documents inédits*(Paris, 1859); P. Viollet, “Les états de Paris en février 1358”, *Mémoires de l'institut national de France, 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t. 34(1895), pp. 261-292; A. Coville, *Les Premiers Valois et les débuts de la guerre de Cent Ans*(Paris; Hachette, 1903).

29) S. Luce, *Ibid.*, pp. 141-142.

그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대의제 등 중세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1356-1358년의 사건을 일련의 혁명들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지 않았다. 즉 다른 혁명들과의 유사성을 찾으려하지 않음으로써 시대착오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마르셀을 중세의 인물로 한정시키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만을 기록했다. “오직 확실한 것은 마르셀이 재앙 이후의 체제에 반대했다는 것, 그리고 부패한 관료와 귀족에 대해 반감을 가졌다는 점”으로 한정되었다. 대신 “마르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치구조와 관습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했다.³⁰⁾ 이밖에도 노엘 발루아(Noël Valois)와 같은 학자 역시 1356-1358년의 사건을 푸아티에의 패배 이후 불만과 왕권에 적대적인 세력들의 야심이 작용한 결과로 간주했다.³¹⁾

이처럼 사료에 충실히 근거한 주장과 그렇지 않은 주장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는 사례를 발루아와 테시에(J. Tessier)의 논쟁에서 볼 수 있다. 테시에에 페랭과 더불어 낭만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마르셀을 영웅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를 한 사람이다.³²⁾ 그는 마르셀이 살해되던 날 문지기의 열쇠를 빼앗은 것은 열쇠를 영국군이나 나바르 파에게 넘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지기의 근무태만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마르셀에게 반역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러한 비난은 마르셀에 적대적이었던 연대기 작가들에 의해 왜곡된 기록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엘 발루아는 14세기의 여러 연대기들이 공통적으로 마르셀의 반역을 증언하고 있으며, 테시에

30) Ch. Amalvi, “L’érudition française face à la révolution d’Etienne Marcel”, pp. 294-295.

31) *Ibid.*, p. 301.

32) “프랑스가 혁명 100주년의 경축을 준비하는 이 순간, 혁명의 선구자들, 89년 훨씬 이전에 자유를 위해 신음하며 싸웠던 [...] 이들을 찬양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름은 두말할 것 없이 에티엔 마르셀이라는 이름이다. [...] 이미 4세기 전에 국민의 권리를 주창하고 그들의 자유를 옹호했던 이 사람은 89년의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아 마땅하다.” 성백용, 『프랑스 왕정과 북부 도시들의 반란』, 3쪽에서 재인용.

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료는 하나도 없으므로 테시에의 주장은 지나친 상상의 결과라고 일축했다.³³⁾

이렇듯 마르셀을 영웅시하려는 관점이나 반역자로 폄하하는 관점이나 모두 실증주의의 영향으로 다소간 퇴조하는 듯 했으나,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대두됨으로써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우파의 경우 애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민족의 승리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거나 칭송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마르셀은 국왕과 민족을 배신한 자였다. 그는 적의 위협을 앞두고 삼부회를 소집하여 왕정을 위협에 빠뜨리고, 내전을 일으키고 무질서를 양기하여 왕국에 군사적 불행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적인 영국인들에게 파리를 넘겨주려했다고 마르셀을 비난했다.³⁴⁾ 이와 달리 좌파에서는 과거의 낭만주의적 해석을 부활시켰다. 특히 1930년대 인민전선은 1789년 이전의 혁명전통을 발굴하는 데에 힘을 썼으므로, 당연히 마르셀은 최초의 민주주의자이자 민중의 보호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시계추는 다시 움직여서 1940년 독일에 패배한 이후, 이 패배를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의 패배와 연관시켰고, 이는 다시 1356년 푸아티에 전투의 패배를 연상시켰다. 그리하여 14세기의 개혁가들은 1870년의 코뮌파르, 그리고 1930년대의 인민전선과 동일시되어, 전쟁패배의 책임을 뒤집어썼다. 그러나 1944년 파리가 해방되자 이러한 해방을 파리코뮌, 더 멀리는 에티엔 마르셀의 자치까지 연결시켰

33) 확실치 연대기에 근거해 본다면 발루아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지만, 당시의 어떠한 연대기도 편견 없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테시에의 주장 역시 불가능한 주장은 아니다. 가령 자크리에 대해서 프루아사르를 비롯한 연대기 작가들은 자크리들을 심지어 “미친개들”에 빗댄 만큼 그들의 폭력성을 과장하는 성향이 있으나, 코빌의 연구에 따르면 문서상 확인되는 사례는 30여 건에 불과하고 또 대부분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자크리가 우리에게 알려진 농민 반란들 가운데 가장 유혈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결론짓는다. 성백용, 같은 논문, 3쪽에서 재인용.

34) 대표적인 저술로는 G. Grosjean, *Sentiment national pendant la Guerre de Cent ans*(Paris: Editions Bossard, 1927); J. Bainville, *Heure et malheur des Français* (Paris: Nouvelle Librairie Nationale, 1924), pp. 293-733을 들 수 있다. Ch. Amalvi, “L'exercices de Style historiographique”, pp. 542-543.

다. 특히 파리의 역할을 강조하여 파리는 “민족의 전위이며 레지스탕스의 중추”라고 했다.³⁵⁾

오늘날 마르셀과 “파리의 혁명”에 대한 평가는 다시 실증적 사료에 근거하여 19세기의 낭만주의적 영웅화를 비판하는 연구와 저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레몽 카젤(Raymond Cazelles)이나 장 파비에(Jean Favier)의 저작이 대표적인 것으로서,³⁶⁾ 이들은 19세기의 역사가들이 주장했듯이 마르셀의 “파리의 혁명”이 기존의 왕정을 입헌왕정이나 공화국으로 바꾸기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푸아티에 전투의 패배에 따른 반귀족적 정서에 마르셀의 개인적 감정과 야망이 결합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설명한다. 특히 카젤은 마르셀과 파리의 혁명을 인물이나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14세기 중엽에 이르러 이른바 ‘공익’을 대변하는 국가 권력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집단들 사이에 펼쳐진 투쟁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성백용의 연구는 연구 대상을 에티엔 마르셀로 한정하지 않고 1380년대와 1410년대의 반란들을 비교함으로써 민중 반란의 일반적인 특징을 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란들을 세금과 화폐라는 재정문제의 틀에서, 좀 더 넓게는 중세 사회의 전반적 위기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카젤과는 다른 측면에서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IV. 대중의 기억

1. 서적

이 교과서(두 어린이의 프랑스 일주)는 집단기억에 깊이 각인되어 그로

35) Ch. Amalvi, *Ibid.*, pp. 543-544.

36) R. Cazelles, *Société politique, noblesse et couronne sous Jean le Bon et Charles V*; R. Cazelles, *Etienne Marcel: champion de l'unité française*(Paris: Tallandier, 1984); J. Favier, *La Guerre de Cent ans*(Paris: Fayard, 1980) 등이 대표적인 저작이다.

부터 떠나지 않는다.³⁷⁾



〈그림 2〉 『프랑스 영웅전』의 에티엔 마르셀 삽화

앞서 살펴본 것은 마르셀에 대한 해석으로서 전문 연구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다. “사실이 어떠하였는가”에 못지않게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할 필요가 없다. 대중에게 기억되기 위해서는 알려져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프랑스의 역사, 혹은 파리의 역사를 다루는 책의 일부로 소개되거나, 인물에 대한 전기의 형태로 보급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마르셀에 대한 대중의 기억 역시 이러한 대중화의 길을 걸었다.

마르셀과 “파리의 혁명”이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전반기였다. 1830년 7월 혁명 이후 마르셀을 입헌체제의 선구자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던 시기에 대중화도 함께 진행되었다. 1844년 아도(T. hadot)가 편찬한 『프랑스 영웅전』(*Plutarque français*)에 마르

37) 자크 오주프, 모나 오주프, 『〈두 어린이의 프랑스 일주〉 공화국의 아동용 교과서』,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1, 공화국』, 김인중 외 옮김(나남, 2010), 293쪽.

셀의 이름이 등장했다.³⁸⁾ 이 책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의 프랑스판으로서 클로비스로부터 시작되는 중세편에 마르셀이 이름을 올렸다.³⁹⁾

그러나 본격적으로 마르셀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민중의 권리를 수호한 영웅으로 신화화된 것은 1870-1890년 사이, 즉 제 3공화정 초기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시기에는 새로운 프랑스의 정치체제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그리고 프랑스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해야 할 지를 두고서 좌·우파 사이에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던 시기였다. 이러한 논쟁과 더불어 마르셀은 점차 신화적인 영웅이 되었다. 1881년부터 1895년 사이에 어린이를 위한 마르셀 전기가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여섯 종류 이상 출판되었다는⁴⁰⁾ 사실은 마르셀의 대중적 인지도를 짐작하게 해준다. 더욱이 이러한 전기의 공통된 목소리는 마르셀이 이끈 일련의 사건이 왕권에 대한 민중의 투쟁이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화주의자들은 마르셀이 공화주의의 순교자이며 잔다르크 못지않게 영국군을 몰아내려 했던 애국자라고 칭송했다. 이러한 해석이 마르셀 전기의 중심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공화주의의 승리와 그것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상징했다.

2. 조각상

인물 조각상은 단지 위인에 대한 경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따라야 할 모범을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⁴¹⁾

38) J. Quicherat, "Etienne Marcel", T. Hadot (éd.), *Le Plutarque français: Moyen âge*, t. 1(Langlois et Leclerc, 1844), pp. 319-341.

39) 중세편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31명으로서 클로비스로부터 시작해서 샤를 5세로 끝난다.

40) 대표적인 여섯 종류는 다음과 같다. Eugène Garcin, *Etienne Marcel*(Paris, 1882); Emile Gautier, *Etienne Marcel*(Paris, 1881); Lucien Lazard, *Un bourgeois de Paris au XIV^e siècle: Etienne Marcel*(Paris, 1895); Edouard Petit, *Etienne marcel ou la bourgeoisie parisienne au XIV^e siècle (1356-1358)*(Paris, 1883); J. L. C. Renaudin, *Etienne Marcel et son époque*(Paris, 1881); Jules Tessier, *Etienne Marcel*(Paris, 1888).

41) 쾨 하그로브, 『파리의 기념상들』,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2, 민족』, 392쪽.

대중에 대한 공적인 교육은 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1882년 파리 시의회는 시청에 세울 에티엔 마르셀의 기마상을 콩쿠르 주제로 제시했다. 이 동상이 건립된 것은 1888년 7월 15일, 그러니까 프랑스대혁명 100주년을 꼭 한 해 앞둔 때였다. 이 날 시청 정원에서 거행된 제막식에서 파리 시의회 의장 다를로(Darlot)와 센도 지사 푸벨(Poubelle)은 1789년의 선구자를 찬양하며 이렇게 말했다. “대혁명에 4세기 앞선 먼 중세에, 모든 이들이 왕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때 사상과 시야가 넓고 깊었던 이 비범한 인물은 대담한 발상으로 동시대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⁴²⁾ 이처럼 마르셀을 찬양하는 경향은 19세기 말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1893년 좌파 언론인이었던 뤼시피아(L. Lucipia)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에티엔 마르셀은 파리의 역사에서, 그리고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이다. 오늘날 마르셀의 동상은 시청에 있다. 정면에서 부두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손에는 칼과 특허장이 쥐어져 있다. 그 특허장은 그가 죽을 때까지 지키려고 했던 파리와 프랑스의 특허장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역사가 레진 페르누(Regine Pernoud)는 시청 정원에 있는 마르셀의 동상에 대해 다소 비꼬는 말투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마르셀은 말을 타고 있으며 칼과 양피지 두루마리를 흔들며 대고 있다. 그 두루마리에는 자유의 특권이 적혀있다. 에티엔 마르셀은 전설이며 오늘날까지도 자유와 민중 권리의 승리자로 기억되고 있다.” 그렇지만 페르누는 그 기마상의 위치가 매우 잘 선택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센 강 우안의 상업지구이기 때문이다. 이미 뤼시피아가 지적했듯이 마르셀이 지향해야 할 지점은 루브르 궁전 방향이나 노트르담 성당이 있는 시테 섬 방향이 아니다. 그가 지켜봐야 할 곳은 센 강의 부두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상업지구에서 센 강의 부두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말을 타고 서 있는 것이 -관광객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위치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42) Ch. Amalvi, “Les métamorphoses révolutionnaire d’Etienne Marcel de Danton à François Mitterrand”, p. 284.

3. 거리이름

“거리 이름은 한 사회의 집단 기억의 표현이며 [...]”⁴³⁾

1880년 동상이 제막되기에 앞서 세바스토폴 거리(Boulevard de Sébastopol)에서 빅투아르 광장(Place des Victoires)에 이르는 길이 에티엔 마르셀 거리로 명명되었다. 이 길은 중세에는 브레뇌즈(Brenneuse 배설물로 오염된) 거리였다가, 메르드레(Merderet 똥을 누는) 거리, 베르드레(Verderet 초록빛의) 거리, 그리고 베르들레(Verdelet 청정한) 거리로 바뀌었다가, 결국에는 에티엔 마르셀 거리로 바뀌었다.⁴⁴⁾

사실 마르셀의 이름을 붙이려했던 도로는 현재의 에티엔 마르셀 거리가 아니라 오스만 거리였다. 1879년 파리 시 당국이 오스만 거리를 마르셀 거리로 바꾸려 했지만, 센 도지사는 그 거리가 상인조합장과 관련이 없다며 반대했다. 이에 시당국은 “프랑스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리고 그 코뮌(파리)에 자치권을 가져다주고자 분투한 이 파리지앵의 혼은 파리 어디에나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응수했다. 우파는 분개했다. “에티엔 마르셀이 누구인가? 그는 선동가요 살인마요 반역자이다.[...] 그런 작자의 이름으로 오스만 거리의 명패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 결국 오스만 거리의 이름은 그대로 두고 세바스토폴 거리에서 빅투아르 광장까지 새로 뚫린 길에 에티엔 마르셀의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것이다.⁴⁵⁾

오늘날에는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에티엔 마르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오면 에티엔 마르셀 거리이다. 이 거리는 꽤 크고 긴 거리로서 에티엔 마르셀 역에서 올라와서 동쪽 방향으로 가면 곧바로 세바스토폴 거리에 이르고 서쪽 방향으로는 꽤 길게 뻗어서 빅투아르 광장에 이른다. 거리나 광장의 이름을 붙이는 관례에 비추어 두

43) 다니엘 밀로, 『거리 이름』,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2, 민족』, 444쪽.

44) 다니엘 밀로, 같은 논문, 441쪽.

45) Ch. Amalvi, “Exercices de Style historiographiques”, pp. 538-539; 성백용, 『에티엔 마르셀과 14세기 ‘파리의 혁명’』, 48쪽.



〈그림 3〉 에티엔 마르셀 지하철역

〈그림 4〉 에티엔 마르셀
거리 표지판

이름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에티엔 마르셀 거리는 빅투아르(Victoires), 즉 승리의 광장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승리의 광장 중앙에는 기마상이 서 있다. 루이 18세의 기마상이다. 마르셀의 승리는 곧 왕정의 승리로 귀결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일까? 아마도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오늘날 전문연구 영역에서는 영웅으로서의 마르셀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문학이나 대중교육 분야에서는 여전히 마르셀을 근대의 선구자이자 전설적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 드뷔브리델(J. Debu-Bridel)은 “파리 시청이 모든 혁명의 중심지였는데 그 시작은 1358년 메종 오펜리에에 있으며 에티엔 마르셀에 의해 시작되어 프롱드, 라파예트, 로베스피에르, 루이필리프, 라마르틴, 그리고 샤를 드골에 이르기까지 시청이야말로 혁명의 성지였다”고 했다. 한 번 만들어진 전설적 영웅의 이미지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법이다.

V. 나가며: 파리의 현재와 미래

이렇듯 마르셀과 14세기의 혁명은 1358년부터 1944년 파리 해방까지 지속적으로 부활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부

활했다. 그것은 파리와 국가(왕정)의 대립이다. 파리는 1970년대 자치를 위한 투쟁을 벌여 백여 년 만에 시장을 시민 스스로 선출했다. 1977년 자크 시라크(J. Chrac)가 백여 년 만에 파리 시민에 의해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그는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의 파리 정비 계획에 반대하면서 파리와 국가의 대립을 초래했다. 말하자면 자크 시라크가 에티엔 마르셀의 뒤를 이었던 것이다. 1981년 대통령에 당선된 프랑수아 미테랑은 파리 시청을 방문하여 “중세의 호민관”(에티엔 마르셀)에게 “파리 시청은 영주의 성채에 대항하는 견제세력”이라며 경의를 표했다. 그날 밤 텔레비전에 출연한 녹색당의 노엘 마메르(Noël Mamère)는 대통령의 이 구절에 대해 “에티엔 마르셀이야말로 왕정에 처음으로 저항한 상징적 인물”이라고 논평했다.⁴⁶⁾

오늘날 파리와 국가의 대립관계를 상징하는 인물도 마르셀이다. 우파는 파리가 자연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음험한 음모가 자라나는 곳이며 혁명이라는 질병을 감염시키는 근원지라고 한다. 게다가 마르셀은 왕정의 적대 세력, 즉 나바르 왕 샤를 및 영국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만약 마르셀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신성한 민족공동체’인 ‘하나의 프랑스’는 분열되고 말았을 것이다. 설사 완전한 분열은 아니더라도 마르셀이 도시의 자유를 추구했으므로 이탈리아나 플랑드르 지방처럼 도시연합체를 구상했을 것이라고 했다. 즉, 14세기의 상황에서 파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자유는 신성한 민족공동체인 프랑스의 통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셀은 공동체의 통일성을 해치는 분열주의자인 것이다.

이와 달리 일련의 사건들을 신의 섭리로 설명하려는 측에서 보면, 프랑스는 하느님의 맏딸이자 하나의 공동체로서,⁴⁷⁾ 때때로 맏딸만이

46) Ch. Amalvi, “Les métamorphoses révolutionnaire d’Etienne Marcel de Danton à François Mitterrand”, p. 246. 미테랑 대통령의 연설 전문(全文)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www.mitterrand.org/21-mai-1981-la-Gauche-entre-dans-1.html>(2016년 8월 15일).

47) 프랑스에 공동체로서의 속성을 부여한 요소들 중에서 “제일 앞자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칭호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맏딸이라는 칭호일 것이다.[...] 클

극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시험에 들게 되는데, 매번 이러한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승리자가 되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의 시련이란 14세기의 경우 푸아티에의 패배, 마르셀의 반란, 그리고 자크리 등 일련의 사건들이며, 19세기의 경우 파리 코뮌이다. 이러한 시련의 극복은 14세기에는 모든 신분이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신성한 민족공동체에 기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19세기에도 역시 신의 계율에 따름으로써 시련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결론이다.⁴⁸⁾ 라비스(E. Lavisse) 역시 “백년전쟁부터 1870년 패배까지 모든 위기로부터 프랑스가 재건된 것으로 미루어 ‘프랑스적 견고함’에는 ‘파괴할 수 없는’ 섭리적 요소가 있다”고 믿었다.⁴⁹⁾

좌파는 파리아말로 자유의 요람이며 해방의 소명을 부여받은 도시로서 프랑스 전체를 해방시키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좌파는 마르셀이 원했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프랑스가 분열되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보기에 마르셀은 로베스피에르 및 산악파와 마찬가지로 파리를 중심으로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예를 들어 루이 블랑(Louis Blanc)은 마르셀이 프랑스 혁명 당시 공안위원회가 했던 국가 통합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하며, 그 근거로 1357년 대칙령에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오히려 세자 샤를이야말로 연방주의를 지지했던 지롱드파에 비유될 수 있다고 했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가정이거나 가능성일 뿐 실제로 이루어지는 않았다. 클랑주의 말대로 “파리의 역할이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로도베우스의 세례는 민족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며 민족을 통합하는 기본 요소였다”. 르네 레몽, 『교회의 딸』,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5, 프랑스들 3』, 155-156쪽.

48) Ch. Amalvi, “Exercices de Style historiographiques”, pp. 547-548.

49) 피에르 노라, 『민족의 교사 라비스: 공화국의 복음서 <아동용 라비스>』,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1, 공화국』, 245쪽.

50) Ch. Amalvi, “Exercices de Style historiographiques”, pp. 553-554.

보수적 프랑스와 유리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까지 파리와 국가(왕정)가 분리된 적은 없다. 사실 마르셀이 요구했던 개혁이나 자크리에서 터져나온 요구들은 모두 국왕에게 요구한 것들이었다. 푸아티에 전투의 패배가 재앙이었던 이유는 국왕이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왕국에 재앙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푸아티에의 패배에 대한 신민들의 불만은 귀족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것이었다.⁵¹⁾ 1789년 파리에서 일어난 10월 폭동 역시 국왕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한 것 아니던가. 따라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국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반란이나 개혁에서 분출된 요구를 국왕이 수용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⁵²⁾ 더욱이 국왕은 반란이 진압된 이후 반란자들을 사면하여 관용의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신성한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곤 했다. 즉 프랑스의 통일성의 유지는 국왕의 손에 달려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는, “시대가 변했다. 국가와 파리는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연설했다. 실제로 국가와 파리의 관계가 대립에서 협조로 변화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파리 시청을 방문한 대통령들이 국가와 파리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둘의 관계가 쉽게 결론이 나기보다는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때마다 14세기의 에티엔 마르셀이 언급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투고일자: 2016. 8. 1, 심사일자: 2016. 8. 8, 게재확정일자: 2016. 8. 10〉

▶ **주제어** : 반란(Revolt), 에티엔 마르셀(Etienne Marcel), 자크리(Jacquerie), 백년전쟁(Hundred Years War), 기억의 역사(History of Memory)

51) Ch. R. de Beaurepaire, “La complainte sur la bataille de Poitiers”, pp. 257-263.

52) 중세말의 반란과 그 해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용진, 「중세 말의 반란과 하층민」, 『서양중세사연구』 제25호(2010), 215-236쪽.

참고문헌

1. 1차 문헌

- Delachenal, R. (éd.), *Chronique des règnes de Jean II et Charles V*, vol.3(Paris, 1910-20).
- Quicherat, J., “Etienne Marcel”, T. Hadot (éd.), *Le Plutarque français: Moyen âge*, t.1(Langlois et Leclerc, 1844).

2. 연구 문헌

- 다니엘 밀로, 『거리 이름』,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2, 민족』, 김인중 외 옮김(나남, 2010).
- 르네 레몽, 『교회의 만탈』,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5, 프랑스들 3』, 김인중 외 옮김(나남, 2010).
- 박용진, 『아미앵을 통해서 본 코뮌의 변천: 도시와 왕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3).
- _____, 『중세 말의 반란과 하층민』, 『서양중세사연구』 제25호(2010).
- _____, 『1358년 에티엔느 마르셀 반란의 원인과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2).
- 성백용, 『1358년 자끄리외와 프랑스 농촌의 위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2).
- _____, 『14세기 후반-15세기 초 프랑스 왕정과 북부 도시들의 반란 : 국가재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2).
- _____, 『에티엔 마르셀과 14세기 ‘파리의 혁명’』, 박상철 편, 『꿈은 소멸하지 않는다』(한겨레출판사, 2007).
- 자크 오주프, 모나 오주프, 『〈두 어린이의 프랑스 일주〉 공화국의 아동용 교과서』,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1, 공화국』, 김인중 외 옮김(나남, 2010).
- 쥘 하그로브, 『파리의 기념상들』,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2, 민족』, 김인중 외 옮김(나남, 2010).
- 피에르 노라, 『민족의 교사 라비스: 공화국의 복음서 〈아동용 라비스〉』,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1, 공화국』, 김인중 외 옮김(나남, 2010).
- Amalvi, Ch., “L’érudition française face à la révolution d’Etienne Marcel: une histoire mythologique?(1814-1914)”, *Bibliothèque de l’Ecole des Chartes*, t. 142(1984).

- _____, “L'exercices de Style historiographique ou les métamorphoses révolutionnaire d'Etienne Marcel de Danton à De Gaulle”, *Francia*, band 13(1985).
- _____, “Les métamorphoses révolutionnaire d'Etienne Marcel de Danton à François Mitterrand”, *De l'art et la manière d'accommoder les héros de l'histoire de France: De Vercingétorix à la Révolution*(Albin Michel, 1988).
- Backouche, I., “Qui a peur du Maire de Paris?”, *L'Histoire*, no. 396(Fev. 2014).
- Bainville, J., *Heure et malheur des Français*(Paris: Nouvelle Librairie Nationale, 1924).
- Beaurepaire, Ch. R. de., “La complainte sur la bataille de Poitiers”, *Bibliothèque de l'Ecole des Chartes*, t. 12(1851).
- Cazelles, R., *Etienne Marcel: champion de l'unité française*(Paris: Tallandier, 1984).
- _____, *Société politique, noblesse et couronne sous Jean le Bon et Charles V*(Genève: Droz, 1982).
- Coville, A., *Les Premiers Valois et les débuts de la guerre de Cent Ans*(Paris; Hachette, 1903).
- Favier, J., *La Guerre de Cent ans*(Paris: Fayard, 1980).
- Garcin, Eugène, *Etienne Marcel*(Paris, 1882).
- Gautier, Emile, *Etienne Marcel*(Paris, 1881).
- Grosjean, G., *Sentiment national pendant la Guerre de Cent ans*(Paris: Editions Bossard, 1927).
- Lacabane, L., “Mémoire sur la mort d'Etienne Marcel, 1358”, *Bibliothèque de l'Ecole des Chartes*, t. 1(1839-1840).
- Lazard, Lucien, *Un bourgeois de Paris au XIV^e siècle: Etienne Marcel*(Paris, 1895).
- Luce, S., *Histoire de la Jacquerie, d'après des documents inédits*(Paris, 1859).
- Perrens, F.-T., *La démocratie en France au Moyen Âge*, vol.2(Paris: Didier, 1873).
- Petit, Edouard, *Etienne marcel ou la bourgeoisie parisienne au XIV^e siècle (1356-1358)*(Paris, 1883).
- Renaudin, J. L. C., *Etienne Marcel et son époque*(Paris, 1881).
- Tessier, Jules, *Etienne Marcel*(Paris, 1888).
- Viollet, P., “Les états de Paris en février 1358”, *Mémoires de l'institut national de France, 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t. 34(1895).

〈Résumé〉

31 juillet 1358: le meurtre d'Etienne Marcel

- La mémoire de 'Danton médiéval' et de 'la Révolution parisienne' -

Yong-Jin PARK

La perspective d'Etienne Marcel et la Révolution parisienne au XIV^e siècle n'est pas si différente de cell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A droite, Marcel était méprisé comme traître, conspirateur ou criminel violent. A gauche, en revanche, ce Prévôt des marchands était admiré comme précurseur de la République, "Danton médiéval", ou même l'ancêtre du Communard. Au cours du XIX^e siècle, soit une soit l'autre a été soulignée pour être conforme au changement de l'air du temps de la société française. Enfin, dans les années 1870 et 1880, Etienne Marcel est devenu un héros mythique qui défendent les droits du peuple contre la monarchie. C'est le symbol du triomphe du républicanisme dans la Troisième République. Aujourd'hui, Marcel est considéré comme le défenseur du pouvoir municipal de Paris contre l'autorité royale, ce qui signifie la nécessité d'une nouvelle relation entre Paris et l'État. Ainsi, la mémoire d'Etienne Marcel sera renouvelée en fonction du changement de la société française.

〈Abstract〉

31 July 1358: The murder of Etienne Marcel

- The Memory of 'Medieval Danton' and the 'Parisian Revolution' -

Yong-Jin PARK

The perspective on Etienne Marcel and the Parisian Revolution in the fourteenth century was not so far from that of French Revolution. The right blamed Marcel as traitor, conspirator, or violent criminal. The left praised this Prévôt des marchands as forerunner of the Republic, "medieval Danton", or even the ancestor of the Communard. During nineteenth century, either of these contradictory interpretations was emphasized in accordance with the fluctuation of the French society. At last in 1870s and 1880s, Etienne Marcel became a mythic hero who defend the people's rights against the monarchy, which symbolizes the triumph of the republicanism in the Third Republic. Nowadays Marcel is considered as the protector of Parisian municipal power from royal authority, which means the need of new relationship between Paris and the state. So the memory of Etienne Marcel will be renewed according to the fluctuation of French society.